

“文정부 무모·무책임한 정부” 맹비난

김관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 민주화 최우선 과제
소득주도성장 환상 벗어나야



연설에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일자리 창출 실패 등 경제실의 원인을 소득주도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이면서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무모하다고 밖에 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하고, 최저임

금의 인상 속도 조절 및 차등 적용을 대안을 제시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취업 시장을 왜곡했다. 전체 취업자 수의 3.7%에 불과한 공무원 시험을 취업 준비생의 40%가 준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면서 “일자리라는 민간이 만들어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사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고용 분배 투자 쇼크상태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경제 희생 대책으로는 경제 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우선 정치개혁 과제로는 선거제도 개혁을 꼽았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선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로비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도의회 행사, 장수가야문화
유적 현장방문 의정활동 전개

‘공모사업의 달인’ 김종희 올해 14건 성과

김제·부안 확보 예산 517억
논리·겸손·추진력 ‘삼박자’



민중평화당 김종희 의원(김제, 부안·사진)이 논리와 겸손,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달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9일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따르면 올 들어 김종희의원의 지원 사격 아래 김제시와 부안군이 판 부처 소관 공모사업은 12건, 18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김제와 부안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각각 250억원(1H 인센티브 157억원 별도)과 142억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올 들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김제와 부안이 각각 확보한 예산은 314억원과 257억원으로 총 571억

원을 웃돈다. 김제시가 선정된 농식품부 공모사업은 기초생활거점육성(백구면과 용지면 각각 28억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백산궁지와 죽산내촌 각각 3억5천만원), 시군역량강화사업(1억600만원) 등이다. 부안군이 선정된 농식품부 공모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부안읍 105억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주산면 28억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신홍 3억5천만원) 등이다. 해수부 권역단위개발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격포항(70억원), 유유·진산·치도(각 14억원) 등이다. 이에 앞서 최근 국토교통부는 ‘제

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 결을 통해 전북 김제와 부안을 포함, 전국 99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확정 발표했다. ‘역사·문화·사람이 만나 다채로움이 펼쳐지는 세계축제도시 김제’라는 사업명으로 공모한 김제시는 국비 150억을 포함, 2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LH로부터 157억원을 별도로 투자 받는 인센티브 혜택까지 받게 된다. ‘배화종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프로젝트로 선정된 부안군은 국비 85억원을 포함, 142억원의 사업비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김제와 부안이 선정되는 걸경사를 맞은 것은 성실성과 겸손, 추진력을 두루 갖춘 김 의원의 ‘지연 사격’ 때문이라는 게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진성 기자

“3차 남북 정상회담, 새시대 열 것”

18일~20일 평양서 개최
민주당, 야당 협조 호소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골자로 하는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 간의 협력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획기적이고 전환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의 모든 협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특사단을 이끌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과 북은 9월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 전에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합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하나 더 마련되고, 이미 합의된 사항이 실천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뉴시스

그는 “특히 이번 특사단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건넨 여러 가지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은 이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후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야당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4·27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절차이기에 국회는 당연히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야 한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협상력 또는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는 데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이견이 없고, 이것이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한다”며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재차 촉구했다. /뉴시스

김성태 ‘출산주도성장’ 정치권 못매

김태년 ‘한국당 인식 천박’ vs 물타기 넓은 악의적 비방



김성태(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출산주도성장’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출산율 경제성장의 도구로 여기고 있다고 비난한데 대해 “제1야당이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 물타기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흑색선전을 하기 위한 악의적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연설의 선의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정치적 공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아동수당을 100%까지 올리는 제도 개선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그나마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는 민주당이 출산정책에 더 중요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

분은 여야 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재정을 올린다는 물타기 같은 비난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정책에 과감한 인식전환을 위한 계기의 여야 협상은 고삐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여성의 출산율 경제성장 도구로 여기는 한국당의 인식이 너무나 천박하다”고 맹비난했다. 또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에서 1억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아동수당 100% 지급부터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